차원 있는 감사 - 추수감사

WELCOME
마음을 여는 대화

친교부장

모든 잎이 떨어지고 앙상한 가지만 남은 겨울 나무처럼, 내 삶의 자원이나 상황이 바닥을 치는 것 같은 막막함 속에서도 도리어 솟아나는 감사와 소망을 경험한 적이 있으신가요? 세상이 주는 조건과 상관없이 내 영혼의 깊은 곳에서부터 터져 나왔던 가장 치열하고도 거룩한 감사의 기억을 나눠봅시다.

WORSHIP
마음을 드리는 찬양

찬양부장

〈 금주의 찬양 : 내가 만민 중에〉

찬송가 : 공중 나는 새를 보라(새찬송가 588장)
맘 가난한 사람(새찬송가 427장)

복음성가 악보는 뒷면에 있습니다.

WORD Ⅰ
말씀 나눔

고린도전서 1장 4~9절 (신약 263면) 목 자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잡을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고전 1:8-9)

WORD Ⅱ
은혜 나눔

전도부장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나누는 시간

1.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당파 싸움과 온갖 영적 결핍, 부조리한 현실 속에 처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조건이나 성취'가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신 하나님의 은혜 그 자체를 인하여 먼저 감사(4절)를 고백합니다. 환경과 조건을 초월하여 나를 구원하시고 자녀 삼으신 '근본적인 은혜' 앞에 나는 지금 진심으로 무릎 꿇고 있는지 정직하게 돌아봅시다.

2.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과 지식의 모든 풍성함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5~7절),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우리를 끝까지 책잡을 것 없는 자로 견고하게 지키시고 신실하게 교제해 주십니다(8~9절). 눈앞의 수확이나 물질적 채워짐에만 머무는 기복적 감사를 넘어,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회복해야 할 가장 차원 높은 감사의 고백은 무엇인지 깊이 나누어 봅시다.

WORK
기도와 돌봄으로 섬김

목장 내에 서로 살피고 기억해야 할 것들을 나누며 기도부장

① 일시적이고 세상적인 조건의 만족을 구하는 차원을 넘어, 십자가의 은혜 그 자체에 감격하며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차원 있는 감사'를 회복하게 하소서.

이 시간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② 목장과 가정을 위한 기도: 서로 기도 제목들을 나눈 후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소식나눔(주보참고) : 비전부장

'주기도문'으로 목장모임을 마칩니다.

내가 만민중에

Brent Chambers

예수전도단 역



Copyright (C) 1977 Scripture in Song/Integrity's Hosanna! Music. Adm. By CopyCare Korea. Used by Permission.